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설 동 훈(전북대 사회학과) / 윤 홍 식(전북대 사회복지학과)

1. 문제제기

현재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는 특이한 사례이기보다는 일상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듯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남성들이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지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2005)의 이혼 및 혼인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에 불과했으나 2004년 현재 11.4%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물론 혼인건수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단순히 집계 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 수치와는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을 만나는 체감정도는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높은 비율의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결혼대상자가 재외한국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피부색깔과 문화를 연상하는 국제결혼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농촌지역의 현실을 보면 많은 한국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 국제결혼을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많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차별받고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불과 10% 내외인 점을 고려한다면(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점증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정책의 시급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라고 통칭되지만 실제로 그들은 다양한 민족(ethnicity)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단간에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해 안정적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결혼이민자 집단이 가지는 특성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연구를 고찰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연구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집중되어 있거나, 국제결혼 여성을 다른 경우도 복지정책대안에 관한 논의보다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와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다루어 왔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제를 직접 다루었다고 하고 전국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다만 설동훈 등(2005)이 수행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이라는 최근의 보고서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국적 실태를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출신국가와 거주지별로 파악해 이들 집단간의 상이성과 공통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각각의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근거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결혼이민자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연구의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연구의 개념적 틀은 본 연구의 중요한 개념인 사회적 적응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정의와 군집분석과 다차원 척도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특성, 분석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군집분석과 다차원 척도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보고,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각각의 집단들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2.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 동향

198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란 주로 미군 아내인 한국 여성에 대한 것으로, 그들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므로 국내보다는 미국에서의 그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송성자, 1974; 박종삼, 1982; Kim, 1972, 1977; Lee, 1981). 이러한 연구들은 미군 아내인 한국인 여성들의 대부분이 하류층 또는 기지촌 출신으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까지 겹쳐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여지연(Yuh, 2002)의 조사에 의하면 미군 아내인 한국 여성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기지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들도 다른 일반 재미 한국인과 다른 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지촌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미국사회는 물론 교민사회에서도 차별적인 대우

를 받았다. 따라서 미군과 결혼한 한국여성들은 교민사회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특히 그녀의 연구는 풍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불평등한 국가관계가 어떻게 부부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가난한 한국의 딸들이 주로 미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결혼이주를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해 사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주체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활동가들은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였고(이금연, 2003; 최근정, 2003; 한국염, 2004; 김상임, 2004; 양정화, 2004; 양혜우, 2005), 특히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사례를 보고하였다(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위흠, 2003; 박현정, 2004).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내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실태 및 사례(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이윤애, 2004; 박재규, 2005)를 통해 그들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여러 편의 석사학위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동포 여성에 대한 연구(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민가영, 2004)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조성원, 2000; 전수현, 2002; 김정선, 2004)는 그들의 국제결혼의 과정과 적응 및 갈등의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결혼 알선업체에 대한 연구(윤정숙·임유경, 2004)를 통해 어떻게 특정 인종이나 국적의 여성들이 ‘홍보’되고 ‘상품화’되는 방식으로 선택되는가를 통해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지나치게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을 ‘매매혼’을 규정하고 외국 여성을 국제결혼의 희생자로 이미지화하고 고착화함으로써, 오히려 외국 여성들이 적극적인 삶의 전략과 행위자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다. 그밖에 한일국제결혼에 대한 두 편의 석사학위 논문(인봉숙, 2001; 한주연, 2002)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이 단편적인 설문조사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 지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농촌사회학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김정태, 2005; 박재규, 2005).

최근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윤형숙(2004a, 2004b)은 전라남도 지역에 결혼해 온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외국 여성들은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결혼하며,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가족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행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정(2003)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필리핀 남성의 논문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혜경(2005)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설동훈(2005)은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이미 “실질적 의미에서” 이민사회가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3. 연구의 개념적 틀

1) 연구의 중요개념

① 사회·경제적 적응의 개념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적응성을 고찰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은 사회적 적응과 경제적 적응이다. 먼저 사회적 적응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개념 검토 이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응(adaptation)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적응이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양호한 삶의 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Barker, 1991). 특히 사회복지에서 적응의 의미는 구조이론(systems theories)에 근거해 개인과 주변의 환경과의 상호적 과정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고 (Germain, 1979), 이를 근거로 사회 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적응에 대한 개념에 근거했을 때 사회적 적응이란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과 이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관계, 친족관계, 이웃관계, 여성 결혼이민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웃관계 및 자조집단의 참여 여부 등이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적응의 핵심적 개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결혼을 위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여성 자신과 외부세계와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수단으로써 한국어 구사 능력 정도를 사회적 적응의 주요한 변수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적응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되는데 하나는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이주여성이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으로 측정된 경제적 수준이다. 특히 경제적 적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Silver(1994)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와 관련성이다. 비록 사회적 배제가 전통적인 경제적 빈곤의 개념을 넘어 사회 구성원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 문화, 의료, 사회 참여 등의 광범위한 문제를 포괄하고 이를 통해 빈곤문제를 설명하려는 시도이기는 하지만 (심창학, 2001, 2003), 경제적 빈곤이 소위 교육, 문화, 의료, 사회 참여 등의 배제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구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안정성은 한 개인이 해당사회에서의 적응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소득이 여성 결혼이민자와 해당 가구의 공통의 이해로써 경제적 안정성(빈곤문제)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이자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접근하는 단초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여성으로써의 시민권 보장이라는 개별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이다. Orloff(199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 시민권의 핵심적 주제가 되는 여성의 독립적인 가구 형성·유지는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권을 통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는 높은 이혼율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제도로서의 결혼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참여는 해당 여성이 인생주기 전반을 통해

안정적 적응을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윤홍식·김혜영·이은주, 2005; 윤홍식, 2004). 즉 경제적 적응은 가구라는 공통의 이해와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별적 이해를 함께 고려한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②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분석방법인 군집분석과 다차원 척도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모두 12개 변수다. 이중 국적과 거주지가 통합된 변수로서 국적 및 거주지 변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구분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국적은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고, 러시아 등 7개 출신국을 의미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 국적 개념을 넘어 민족(ethnicity)개념을 적용해 조선족과 한(漢)족으로 다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국적개념에 현재 여성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다시 도시지역 거주자와 농촌지역 거주자로 구분하였다. 특별히 여성 결혼이주여성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거주자로 세분한 이유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수준도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건사회연구원의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월 가구소득은 농어촌이 24.0만원으로 대도시의 22.5만원보다 1.5만원 높게 나타났다 (이태진·강혜규·박능후·원종욱·이현주·이승경·김선미·김계연·양시연, 2003). 이는 가구 당 월 평균 주관적 최저생계비가 농촌의 경우 766천원이고 대도시가 1,025천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거주지역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근거해 각 집단간의 상이성을 분석한 다차원 척도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출신국가 및 출신국가에서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출신국의 일반적 경제적 수준, 출신국가에서의 소득수준, 입국경위, 학력수준 등에 관한 변수들이다. 먼저 출신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구매력(PPP)을 반영한 GDP를 사용하였다. GDP를 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GDP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경제적 기대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여성 결혼이주자는 한국보다 높은 경제적 수준에 있는 국가로부터 이주했기 때문에 한국생활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 것을 것이고, 현실에서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만족도로 측정된 사회적 적응은 다른 국가 출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개연성이 높다. 다음은 출신국가에서의 소득수준으로 출신국가의 GDP가 출신국가별 일반적인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라면 출신국가에서의 소속 가구의 주관적 소득수준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여성 결혼이민자의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출신국가에서의 소득수준은 ‘(1) 평균보다 훨씬 낮다, (2)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3) 평균이다, (4) 평균보다 약간 높다, (5) 평균보다 훨씬 높다’와 같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입국경위는 ‘귀하는 한국인 남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결혼중개업체, 행정기관,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경우 입국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한 경우(1)로 간

주하고 그 외에 부모, 형제, 친구 등의 소개로 만난 경우는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0)로 분류해 브로커가 개입한 비율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 변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상식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습득 능력 등과 같이 사회적응수준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국인의 학력이 가지는 의미와 달리 이민자의 경우 '숙련의 이전장벽' 때문에 출신국가에서의 학력수준이 노동시장 진입여부 및 지위와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hiswick, 1978, 1980, 1982, 1984; Seol, 2005).¹⁾

두 번째 변수 집단은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변수들로 연령차이, 한국어 실력, 부부관계만족도, 친족·이웃관계 만족도, 자조집단 참여 여부 등이다. 먼저 연령차이는 남편의 연령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차이다. 남편의 연령이 높은 경우는 정의 값이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는 부의 값이나 대부분의 경우 남편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남편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차를 변수로 사용한 것은 연령차이가 클수록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베트남과 구소련 출신의 경우 남편과의 연령차가 무려 11.4세, 10.6세로 결혼이민자 집단 중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결혼생활의 안정성이 결혼연령과 정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Becker, Landes, & Michael, 1977) 연령차가 사회적 적응 수준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차가 크다는 것은 남편이 재혼일 가능성이 높고, 재혼의 안정성이 초혼인 경우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해 (Becker et al., 1977) 변수로 사용하였다. 한국어 실력은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각각 '(1) 매우 능숙하다, (2) 약간 잘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서툰 편이다, (5) 매우 서툴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된 값을 역 점수화한 값의 합을 4로 나눈 평균값이다. 부부생활만족도는 '남편이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 부부사이의 친밀감, 부부의 성생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등' 8가지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값의 합을 8로 나눈 평균값을 사용하였다.²⁾ 친족·이웃관계 만족도는 이웃과의 관계, 남편의 부모와의 관계, 남편의 기타 가족·친척과의 관계를 각각 5점 척도((1)매우불만이다, (2) 대체로 불만이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5) 매우 만족한다)로 측정된 값의 합을 3으로 나눈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자조집단 참여여부는 조사시점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교 및 친교모임, 종교단체, 국제 결혼자 권익 보호단체 등과 같은 모임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측정해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 비율을 출신국가 및 거주지별로 측정된 값이다.

세 번째 변수 집단은 경제적 적응성과 관련된 변수들로 취업여부와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취업여부는 조사시점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가 임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주당 노동시간과 근로와 관련된 개인소득여부를 통해 파악하였다. 조사시점 현재 취업한 경우는 '1', 비취업인 경우는 '0'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취업여부 변수가 주로 유급노동과 관련된 질문을 바탕으로

1) '숙련의 이전 장벽'은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습득한 교육과 숙련을 그대로 새로운 지역에서 발휘할 수 없으므로, 특히 이주 초기에는 사회경제적 하강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 부부관계 만족도에 관한 구체적인 설문은 설동훈 등(2005: 360)의 질문지 참조.

구성되어 자료(질문지)에서 수집되지 않는 가족노동 종사자와 같은 무보수 노동시간은 비취업으로 분류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취업상태로 계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가구소득은 월 단위 해당 가구의 지난 3개월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적응성의 상이성을 보기위해 집락분석(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을 사용하였다(설동훈, 2003 참조). 집락분석은 유사한 요소를 같이 묶고 상이한 요소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기법인데, 여기에서는 그 여러 세부기법 가운데 위계적 방법(hierarchical clustering techniques)을 선택하였고,³⁾ 사례들 간의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로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였다.⁴⁾ 또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측정단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Z 점수를 구하여 원래 값에 대체하였고, 집락화의 방법으로는 집단간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between groups)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집락화 결과를 공간상에 배치하여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차원척도기법을 사용하였다. 다차원척도기법은 최초의 형상으로부터 반복된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공간상의 거리가 가능한 한 본래의 근접성을 잘 나타내도록 오차(stress)를 줄여 나가면서 최종 해(solution)를 구하게 된다. 오차의 크기는 도출된 거리가 본래의 자료에 어느 정도 잘 근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⁵⁾

3) 연구 대상 및 자료⁶⁾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자료의 특성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시도별로 할당된 표집 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지역은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의 방법을 적용하였고, 그 외의 지역은 이주여성과 관련된 지원단체들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발굴 면접조사 하였다. 또한 모집단 분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상대

3) 이 기법은 집락화를 개별 단위에서 시작하여 이를 집단으로 지속적으로 묶어 나가, 마지막에는 모든 개별 단위가 하나의 큰 집락을 이루도록 해 나가는 방법이다.

4) $D(x, y) = \sqrt{\sum_{i=1}^k (x_i - y_i)^2}$
두 사례 x와 y의 유클리드 거리(D)는 집락화의 근거로 삼는 k개 변수의 변수 값간 차이의 제곱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 제곱근을 씌워 측정된 것이다.

5) 일련의 좌표로 최초의 형상을 결정짓고, 이로부터 도출된 공간에서의 거리를 계산하고 원래의 근접 값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오차가 크면 좌표를 이동시키고 도출된 공간에서의 거리를 다시 계산하게 된다. 이 작업을 도출된 거리가 원자료에 적합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원의 수를 높이면 오차의 값은 감소하고, R2의 값은 증가하게 된다.

6) 자료에 대한 소개는 설동훈 등(2005: 12-15)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농촌과 도시 중에서는 농촌을, 수도권과 지방 중에는 지방을, 그리고 결혼이민자 수가 많은 국가와 적은 국가 중에는 적은 국가의 표본을 원래 할당비율보다 많이 뽑는 가중표집(weighted sampling)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가구를 면접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에 응한 가구는 총 1,082가구이고,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편 모두가 응답한 945가구에 관한 자료이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결측치가 많은 자료와 출신국가·거주지의 사례 수가 10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85명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자료는 유엔의 최신 통계를 활용하였다(UNDP, 2005).

4. 분석결과

1)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

<표 1>은 출신국가와 국내 거주지역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관련된 지표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출신국가의 구매력 기준 GDP를 보면 일반적 예상과 같이 일본이 28,450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몽골이 1,820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국에서의 소득계층은 몽골출신이 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몽골출신의 경우 대체로 평균소득계층 이상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베트남 출신 여성은 조사시점 당시 도시지역 거주자와 농촌지역 거주자의 출신국가에서의 소득수준이 연구대상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2.78)와 농촌거주자(2.76) 모두 출신국가에서 소득수준은 평균소득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비율은 일본출신여성이 가장 높은 89.47%(도시), 98.23%(농촌)으로 조사되었다. 특별히 일본출신 여성 결혼이민자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비율이 높은 것은 일본여성의 경우 대부분 특정종교단체의 주선을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반면 러시아출신과 중국한족 출신의 경우 브로커를 경유하는 경우는 각각 6.90%와 6.9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족의 경우도 브로커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도시거주자의 경우는 11.40%, 농촌거주자의 경우는 2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중국한족, 조선족, 일본을 제외한 국가출신이 브로커를 경유해 입국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는 43.75%(태국농촌거주자)이고, 높은 경우는 64.63%(필리핀농촌거주자)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일본과 러시아 출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출신 여성의 경우 평균교육연수가 13년을 넘어 고등학교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조사시점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태국출신여성의 평균교육 연수가 8년을 조금 넘어 비교 국가집단 중 가장 교육수준이 가장 낮다. 주목할 점은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 하더라도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지(8.08년) 아니면 도시에 거주하는지(10.06년)에 따라 평균학력연수가 2년 가

카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차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베트남과 러시아 출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여성의 경우 조사시점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그 차이가 6.65세이다. 그러나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연령차이가 13.82세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연령차이가 가장 적은 집단은 일본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로 도시와 농촌거주자 각각 0.95세와 1.65세로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여성 이민결혼자의 경우 브로커(종교단체)에 의해 국제결혼이 면밀히 계획된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결혼상대자 선정에 있어 목적의식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어 실력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조선족이 월등히 높고, 중국한족과 러시아 출신이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출신은 한국어 실력이 모두 평균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가장 낮은 집단은 농촌에 거주하는 태국과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로 나타났다. 학력과 같이 베트남 출신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농촌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한국어 구사능력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부부관계 만족도는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대체로 평균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몽골출신의 경우 부부관계 만족도가 4.50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및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부부관계 만족도와 같이 모든 집단이 평균인 3점에서 4점 이하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친족 및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부부관계 만족도와 같이 몽골출신이 가장 높은 3.72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조집단에 참여하는 비율은 예외적으로 일본출신여성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일본출신여성의 예외적 특성은 일본출신여성의 경우 종교단체를 경유해 한국남성과 결혼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특정 종교 활동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출신을 제외할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태국출신 여성과 도시에 사는 필리핀 여성이 가장 높은 자조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조단체 참여가 가장 저조한 집단은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도시와 농촌거주지역의 구분 없이 참여비율이 24.32%와 17.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점은 조선족인데 조선족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민족적 동질성이 높고 언어 장벽도 상대적으로 낮는데 반해 자조집단 참여비율이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족의 경우 특별히 자조집단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장벽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비율은 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필리핀 출신, 몽고출신 여성의 경우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출신 여성의 경우 도시 거주자의 경우 23.68%, 농촌거주자의 경우 11.50%에 불과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취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라고 했을 때 취학연수가 가장 높은 일본여성의 취업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숙련의 이전장벽'이 있기 때문에 출신국가에서의 인적자본 수준이 그대 이주국가에서의 인적자본으로 등치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취학연수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여성의 취업률이 51.72%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는 가구소득수준은 러시아출신여성이 월 평균 35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러시아 출신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아시아 국가출신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다음으로 도시거주 조선족과 몽골출신 여성의 가구소득이 각각 268만원과 25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농촌에 사는 태국출신여성 가구로 월 평균 소득이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에서 주목할 결과는 일본출신여성의 가구소득이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과 농촌에 거주하는 태국출신여성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득수준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점은 일본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이 다른 국가출신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표 1> 출신국과 국내 거주지별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 지표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KCU	4,980	3.11	11.40	6.61	11.15	4.16	3.67	3.53	53.68	76.84	268.24
KCR	4,980	2.98	26.67	5.95	10.56	4.13	3.35	3.69	63.33	65.00	172.35
CJ	4,980	3.23	6.98	6.33	11.39	3.49	3.34	3.53	46.51	60.47	183.70
JU	28,450	3.37	89.47	0.95	13.50	2.90	3.44	3.14	100.00	23.68	136.44
JR	28,450	3.05	98.23	1.65	13.37	2.50	3.14	3.02	97.35	11.50	149.77
FU	4,640	2.88	50.54	8.08	11.87	2.80	3.47	3.55	75.27	75.27	192.79
FR	4,640	3.06	64.63	7.26	10.79	2.86	3.32	3.52	69.51	62.20	175.39
VU	2,490	2.78	54.05	6.65	10.06	2.56	3.42	3.34	24.32	48.65	143.31
VR	2,490	2.76	47.06	13.82	8.08	2.26	3.44	3.34	17.65	58.82	182.90
TR	7,450	2.94	43.75	7.00	8.88	2.32	3.22	3.32	81.25	62.50	79.66
MU	1,820	3.80	50.00	9.20	11.80	2.97	4.50	3.72	50.00	70.00	259.50
RU	8,950	3.07	6.90	10.17	13.32	3.22	3.59	3.55	68.97	51.72	35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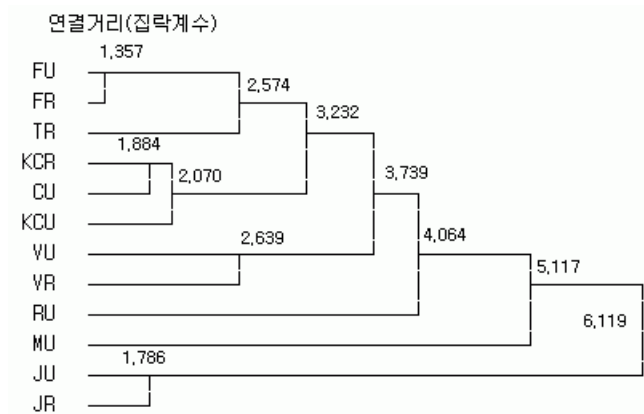
- 주: 1) X1 구매력 기준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달러)
- X2 본국에서의 소득계층(최소 0, 최대 10; 11점 척도)
- X3 중개기관을 통한 결혼자 비율(%)
- X4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이(세)
- X5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학년수(년)
- X6 한국어 구사능력(매우 미숙 1, 매우 능숙 5; 5점 척도)
- X7 부부관계(매우 불만 1, 매우 만족 5; 5점 척도)
- X8 친족관계이웃관계(매우 불만 1, 매우 만족 5; 5점 척도)
- X9 자조집단 참여율(%: 불참 0, 참여 100)
- X10 취업률(%: 비취업 0, 취업 100)
- X11 가구소득(만원)
- 2) KCU 중국동포 도시거주자
- KCR 중국동포 농촌거주자
- CJ 중국한족 도시거주자
- JU 일본인 도시거주자
- JR 일본인 농촌거주자
- FU 필리핀인 도시거주자
- FR 필리핀인 농촌거주자
- VU 베트남인 도시거주자
- VR 베트남인 농촌거주자
- TR 태국인 농촌거주자
- MU 몽골인 도시거주자
- RU 러시아인 도시거주자

2)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

<표 2> 출신국과 국내 거주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의 거리 행렬

	KCU	KCR	CU	JU	JR	FU	FR	VU	VR	TR	MU	RU
KCR	2.048											
CU	2.093	1.884										
JU	6.343	5.906	5.549									
JR	7.068	6.510	6.169	1.786								
FU	3.075	2.682	2.680	5.340	5.701							
FR	3.332	2.570	2.481	4.798	5.155	1.357						
VU	4.226	3.689	3.185	5.619	5.574	2.988						
VR	5.004	4.827	4.368	7.353	7.242	3.937	3.684	2.574				
TR	4.773	3.857	3.639	5.196	5.283	2.908	2.370	2.801	3.668			
MU	4.324	5.139	4.573	6.923	8.021	4.702	4.725	5.709	6.055	6.223		
RU	2.944	3.840	3.231	6.111	6.526	3.333	3.798	4.772	5.233	5.362	4.599	

주: 각 지표를 표준화점수(z-score)로 변환하여 유클리드 거리로 측정한 비상이성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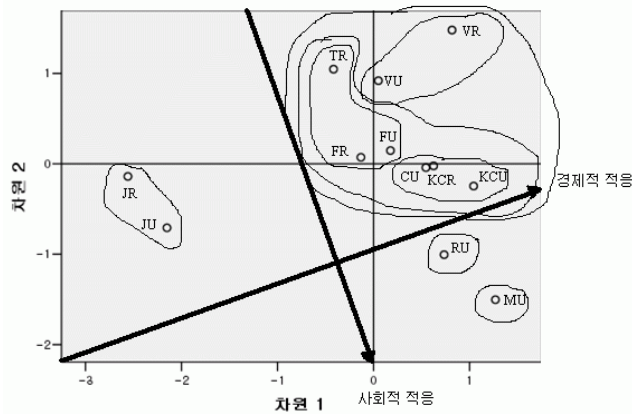


[그림 1] 집락분석 결과: 수평 나무그림

<표 3> 다차원 척도의 차원별 좌표

	차원 1(x축)	차원 2(y축)
KCU	1.0422	-.2459
KCR	.6251	-.0228
CU	.5450	-.0416
JU	-2.1518	-.7076
JR	-2.5585	-.1392
FU	.1760	.1467
FR	-.1316	.0717
VU	.0503	.9196
VR	.8169	1.4797
TR	-.4169	1.0470
MU	1.2687	-1.5028
RU	.7346	-1.0048

계산 결과 오차(Kruskal's stress)는 .083으로, 이는 원래 자료가 거의 오차 없이 2차원 좌표 평면에 정확히 그려졌음을 의미한다($R^2=.971$).



[그림 2] 다차원척도분석과 집락분석 결과의 종합

다차원척도분석과 집락분석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집락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집락계수 3.8을 기준으로 자르면 네 가지 집락을 구분할 수 있다. 제1집락은 필리핀과 중국 조선족·한족 및 베트남 출신 이민자로 구성되고, 제2집락은 러시아 출신 이민자, 제3집락은 몽골 출신 이민자, 제4집락은 일본 출신 이민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결과를 다차원척도의 2차원 해에 적용하면, 집락계수 3.8은 [그림 2]에 제시된 2개의 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차원척도를 그리기 위해 도입한 원래의 차원 1(x축)과 차원 2(y축)는 단지 각 좌표를 표시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석의 필요에 따라서 그 축을 직교 회전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새롭게 그은 두 개의 축을 '사회적 적응'과 '경제적 적응'으로 명명하고, 그것들을 각각 x축과 y축으로 파악하여 결과를 해석하기로 한다.

우선, 사회적 적응이 가장 우수한 집단은 몽골 이민자로 나타나고, 다음이 러시아 이민자, 그리고 중국 이민자 등의 순이다. 반면, 태국인 이민자, 베트남 이민자, 일본인 이민자 중 농촌거주자 등이 사회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경제적 적응이 우수한 집단은 베트남인 이민자 중 농촌거주자와 중국동포 이민자 중 도시거주자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인 이민자 중 도시거주자, 중국동포 이민자 중 농촌거주자, 몽골인 이민자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인 이민자들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경제적 적응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인 선진국 출신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사회적·경제적 부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은 주로 저개발국 출신으로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자부하지만, 일본인 이민자들은 사회적 지위의 하강이동을 동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것은 일본인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거의 취득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몽골인과 러시아인 이민자들 중에서 도시거주자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들은 매우 순조로운 경제적·사회적 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신국에서 그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동시에 한국인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사실을 반영한다. 몽골인 여성은 본국에서의 소득계층이 비교 대상 집단 중 가장 높고, 러시아 출신 여성 이민자의 남편의 소득이 비교 대상 집단 중 가장 높다. 더구나 그들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한다. 이러한 점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국내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을 뜻한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제1집락에 소속되어 있다. 베트남인 농촌거주자는 경제적 적응이 가장 우수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적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고, 가구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그들의 한국어 실력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베트남인 도시거주자들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그들의 사회적 적응 점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태국인 농촌거주자는 사회적 적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부각된다. 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베트남인 농촌거주자와 더불어 가장 낮다. 이러한 점은 그들의 평균 취학년 수가 중학교 졸업 수준에 미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사와 단순노동에 종사하며 경제적 적응은 비교적 순조롭게 하지만, 사회적 적응에서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적응이 높다는 점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들을 일등 신부감으로 대접하고 있지만, 그들 개인의 측면에서는 매우 많은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이다.

중국동포와 중국한족 이민자들은 사회적·경제적 적응이 비교적 양호하다. 그들은 한국어에 이미 능숙해 있거나, 습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제적으로도 취업과 소득 수준이 양호하여 매우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필리핀인 이민자들은 사회적 적응의 면에서는 베트남인과 태국인들보다는 잘 적응하는 편이지만, 나머지 집단과 비교할 때는 뒤쳐진다. 경제적 적응의 면에서는 필리핀인 이민자 중 농촌거주자의 적응 수준이 일본인 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5. 결론: 복지정책함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12개의 집단으로 분류해 사회적 적응과 경제적 적응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와 거주지역 따라 다양한 적응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 출신 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적응수준을 보이고 있고, 농촌거주 베트남 여성과 도시거주 중국한족 여성은 경제적 적응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본출신 여성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적응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조선족의 경우 문화적, 민족적 동질성이 가장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적응은 몽골과 러시아 출신보다 낮고 경제적 적응은 농촌거주 베트남 출신여성과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 결혼이민자가 같은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해당 여성이 도시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농촌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적응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경제적 적응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높고, 농촌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보다 중국한족 여성과 사회경제적 적응도에 있어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및 경제적 적응과 관련된 복지정책의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적응에 관한 지원에 있어 모든 여성 결혼이민자의 욕구수준이 동일하다기 보다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이다. 몽골 출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적응수준이 높아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지원욕구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농촌에 사는 태국여성과 베트남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적응과 관련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부부관계 프로그램,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이 모든 집단에 동일 수준으로 요구되기 보다는 사회적 적응수준이 낮은 농촌거주 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에게 집중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구사능력은 태국여성과 베트남 여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적응 수준도 사회적 적응 수준과 같이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지원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은 일본, 필리핀(농촌거주), 태국(농촌거주) 여성들의 욕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출신 여성의 경우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취업률과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어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는 일본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적응수준이 두 차원(사회경제적 차원)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 통념에 근거한다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은 피부색깔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동남아시아 출신여성들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상대적으로 문화·사회·언어적 유사성이 큰 집단이라고 간주되는 일본출신여성의 부적응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일본여성의 경우 기존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된 집단이었고,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부적응 정도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출신여성의 경우 언어학적 유사성이 조선족을 제외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통념인데 이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태국과 베트남 출신여성들과 같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적응수준을 높여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대안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문제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상이한 특성에 근거한 다양한 차원들의 정책수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몇 개의 정책대안과 지원 수준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천착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결혼이민자들(여성과 남성 모두)은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후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할(하는) 주체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적과 사회권의 범위와 대상을 둘러싼 논쟁과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국제결혼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한국사회가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을 복지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는 변화해 가고 있고, 그에 따라 시민권에 대한 규정과 권리도 변화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인적교류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나라 사람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한국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은 바로 한국사회가 튼실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특성과 한국사회의 특성을 공존시키는 문제이다. 기존 논의에서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문화와 언어 교육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동화되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적 차별과 폭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한국사회 특성의 양립의 전제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포용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확대·심화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다양성의 문제는 단순히 결혼이민자의 문제이기 보다는 가족·사회·문화·경제 등 한국사회 모든 부문에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 참고 문헌 〉

- 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외국인 주부 실태조사」.
 김민정. 2003.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한국남편’ 되기.” 제35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

- 회 발표 논문.
- 김상임. 2004. “상당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pp. 17-48.
- 김애령. 1998. 『충남 거주 조선족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 김정선. 2004.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 여성의 ‘가족’ 만들기를 통해 본 지역 가부장제의 변형 및 재구성.” 『국가횡단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년 6월 4일. pp. 5-41.
- 김정태. 2005. “농촌지역 결혼연령 성비 분석과 국제결혼의 의의.” 『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5년 6월 17일. pp. 105-114.
- 민가영. 2004. “글로벌 자본과 로컬 가부장의 충돌과 공모: 조선족 여성이주를 둘러싼 조선족 사회의 ‘여성유실’ 담론을 중심으로.” 『국가횡단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년 6월 4일. pp. 43-71.
- 민경자. 2003.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박재규.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5년 6월 17일. pp. 123-128.
- 박종삼. 1982. “한미 국제결혼에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의사전달 갈등의 이론적 고찰.” 『충전대학교 논문집』 12: 99-136.
- 박현정. 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pp. 1-34.
- 설동훈. 2003. “다차원 척도 분석.” 홍두승·설동훈 편, 『STATISTICA를 이용한 사회과학자료 분석』. 다산출판사. pp. 319-343.
- 설동훈. 2005. “이민과 다문화 사회의 도래.” 김영기 편, 『한국사회론』. 전북대학교출판부. pp. 3-23.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 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성지혜. 1996. “중국교포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 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미8군 정신위생과에 의뢰해 온 미국군인배우자를 가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 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 로”. 『한국사회복지학』 44: 178-208.
- 심창학. 2003.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국가별 비교”. 『유럽연구』 18: 209-238.
- 양정화. 2004.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NGO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양혜우. 2005.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 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정책 평가와 과제 — 종합 자료집』.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pp. 446-460.
- 위흠. 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2003년 6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 윤정숙·임유경. 2004. “성별화된 이주 방식으로의 국제 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 필리핀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윤형숙. 2004a.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pp. 321-349.
- 윤형숙. 2004b.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움 발표 논문.
- 윤홍식·김혜영·이은주. 2005.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 본 여성가 구주 가구의 빈곤 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1(3): 269-288.
- 이금연. 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 이윤애. 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 이태진·강혜규·박능후·원종욱·이현주·이승경·김선미·김계연·양시연. 2003.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73-106.
- 인봉숙. 2001. “한일국제결혼가정 2세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조사 연구: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 가정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전수현. 2002.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성원. 2000.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과 재생산.”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근정. 2003. “우편주문신부 그 현황과 성매매로서의 의미.” 『국제 성매매근절 운동팀 강연회 자료집』. 2003년 11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 통계청. 2005. 『인구동태통계연보 (혼인·이혼편)』. <http://kosis.nso.go.kr>
- 한국염.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움: 이주의 여

- 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pp. 1-16.
- 한주연. 2002. “한·일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가족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 홍기혜. 2000.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Barker, R. 1991. *The social work dictionary*, 2nd edition. Washington, DC: NASW Press.
- Becker, G., Landes, E., & Michael, R. 1977. "An economic analysis of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1141-1187.
- Chiswick, Barry R. 1978. "The Effect of Americanization on the Earnings of Foreign-Born 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5):897~921.
- Chiswick, Barry R. 1980. "Immigrant Earnings Patterns by Sex, Race, and Ethnic Groupings." *Monthly Labor Review* 103(10):22~25.
- Chiswick, Barry R. 1982.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Level and Distribution of Economic Well-Being." Pp. 289~313 in Barry R. Chiswick (ed.), *The Gateway: U.S. Immigration Issues and Policie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Chiswick, Barry R. 1984. "Illegal Aliens in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Analysis of Occupational Attainment and Earning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8(3):714~732.
- Germain, C. 1979. *Social work practice: People and environmen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m, Bok-Lim C. 1972.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cans." *Social Casework* 53(5): 273-279.
- Kim, Bok-Lim C. 1977. "Asian Wives of U.S. Servicemen: Women in Shadows." *Amerasia Journal* 4(1): 91-115.
- Lee, Daniel B. 1981. "Military Transcultural Marriage: Research Findings." Paper presented at the Department of Army Behavioral Science Conference, El Paso, Texas.
- Orloff, 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03-328.
- Seol, Dong-Hoon. 2005 (forthcoming). "Earnings Divergenc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1990s: Dynamics of the Decline of Wage Discrimination against Industrial Technical Trainees." *East-Asian Cooper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edited by Seong-Ho Ahn and Byeongil Rho. Daejeon: Daejeon University Press.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578.
- UNDP. 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 Yuh, Ji-Yeon. 2002. *Beyond the Shadow of Camptown: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